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과 성실로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상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린 소식.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9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명백한 거짓말은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범할 수 있는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깨달아 버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믿음의 능력을 받자.

04 간증

희귀병이 치료되고, 태아도 정상으로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을 치료받은 최나영 자매와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태아가 정상이 된 뉴질랜드 조슈아 황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663호 2014년 12월 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 각계각층에서 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만민 성도들



▲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1 오복순 집사, 2 이윤하 자매, 3 조미숙 집사, 4 황순욱 집사, 5 김본부 형제, 6 최현지 자매, 7 나주희 아동, 8 길은서 아동과 '제11회 남한산성 나라사랑 문화제 학생 그림·글짓기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은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던 제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좋은 하나님을 만나 귀한 교회에서 온갖 질병을 다 치료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자랑스런 한국인 2014 대한민국 환경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오복순 집사(주사랑선교회)가 새터민 봉사대상을 받았다(사진 1).

예전의 자신과 같이 의지할 곳 없이 슬픔을 겪는 새터민들을 엄마처럼, 친구처럼 보살피며 기도해 준 것이다. 그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백내장, 무릎관절염,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젊어졌다는 말도 들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

했다. 이처럼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니 일흔두 살의 나이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참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전도해 많은 열매도 맺고 있다.

2014년은 축복의 한해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영적 축복은 물론, 성도들이 각계각층에서 빛을 발함으로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저마다 체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제17회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봉사자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윤하 자매(고2선교회)의 간증 또한 마찬가지이다(사진 2).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선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돕는 학생이 됐다

고 한다. “6학년 때 특수아 친구와 짝이 돼서 학교생활을 도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중학생이 돼서도 저와 같은 반이 되길 원하셨어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된 거죠. 당회장님의 변함없으시고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선행과 구제를 마음에 새김으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에 사랑을 담아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윤하 자매는 다문화 가정 및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어린이들의 기초습관 및 학습지도를 하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성격이 밝아지는 아이들의 변화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을 수상한 이윤하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천여 가정을 꾸준히 구제하시는 당회장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제 봉사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런 큰 상

을 받게끔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본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다.

빛과소금선교회 조미숙 집사는 현대코엑스백화점 10회 연속 TOP 매니저 공로상을 받았다(사진 3). 그녀는 “매일 아침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매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판매할까가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 단골 고객도 늘었어요. 제가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보기만 해도 행복하대요.”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전해 수상으로 영광 돌린 만민의 2세대들도 있다. '제14회 인천국악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중고등부 한국무용부문 대상을 받은 최현지 자매는 “저는 대회 전에는 기도를 받고 출전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

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도 느껴요.”라고 말했다(사진 6).

또 나주희 아동은 '전국학생음악콩쿠르대회'에 자동응답서비스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참가해 피아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길은서 아동은 '제11회 남한산성 나라사랑 문화제 학생 그림·글짓기 대회'에서 손에 권능의 무안단물을 뿌린 뒤 그림을 그려 국회 의장상을 받았다(사진 7, 8).

이 밖에도 구평서 장로는 올해 세정협조 및 성실납세로 '중부지방국세청장상'을, 황순욱 집사는 충청북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사진 4). 김나란솔 자매는 '제23회 한음 음악콩쿠르' 성악 일반부 1등을 차지했고, 김본부 형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문학상'에서 시부문 우수상을 받는 등(사진 5) 수많은 성도가 수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16)

#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람이 애매히 누명 쓰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든가, 실제 금액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고도 아무 말이 없다면 정직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정직해 말과 행실이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가 마음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먹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숨겼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온전하지 않지만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

다.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선한 의도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면 하얀 거짓말을 안 해도 그 상황을 피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정직한 마음을 이루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37절에 “...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의롭다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경우

사람들은 남의 표정과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눈이 나쁘거나 딴 생각을 하며 못보고 지나쳤는데 상대는 ‘모른 척한다. 나에게 감정이 있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치 빠른 사람이나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함으로써 감정을 품거나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대의 마음과 달리 자신의 판단에 맞춰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는 것은 결국 거짓 증거입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판단한다면 이 역시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육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악을 발했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 자신과 같은 악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속인다고 의심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무시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마 7:1-5). 자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악을 다 벗어 버리면 상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보기 원하며 상대에게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

다” 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동원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일이 결코 어서는 아니되지요.

사람들은 악의가 없이도 사소한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이지요.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을 보고 “다 먹었다.” 하거나, 조금 남은 음식을 보고 “하나도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두세 사람의 의견을 ‘모두’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숫자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해도 결국 거짓말이 됩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에 맞춰 영뚱하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지요. 한 예로 “상이 초라하네.”라고 말한 것을 “고기 반찬이 없다.”고 했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사소할 수 있고 거짓말도 아니지만 말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지요.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오직 아는 대로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자신의 말에 진실성이 결여됐다면 이는 곧 거짓의 속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도 발견하는 대로 버림으로 온전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이 없는 정결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시 84:11).

많은 사람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움이 보이지 않아도 아주 밝은 빛이 비추이면 미세한 먼지나 얼룩까지 드러납니다. 이처럼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거짓 증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

재판에서는 증인의 말이 직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나쁜지 확연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재판입니다.

성경은 증언하는 사람이나 판결하는 사람 모두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지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정황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과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형벌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신 19:15-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버려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물론이고, 사실을 말해야 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

### 2.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빼서 영뚱하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좋게 전한다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전해 오해를 빚으니 문제입니다.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억양이나 장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요.

예컨대, 똑같이 “왜 그래?” 하는 것도 걱정스럽게 말하는 억양이 다르고, 화가 나서 따지듯이 말하는 억양이 다릅니다. 물론 녹음기처럼 상대의 말을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정확하게 전한다 해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말이라면 전하지 않아야 하지요. 좋은 의도에서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 마음이 상한다면 사람들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주는 교훈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11절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밟는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 날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란다.

## 첫 번째 시험, '탐욕'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 4:3)

## 두 번째 시험, '교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 4:5~6)

## 세 번째 시험, '세상 영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마 4:8~9)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 마귀의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고 대적해야 한다(약 4:7).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데(엡 6:11, 17). 이때 하나님 말씀이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영으로 일궈야 한다. 말씀이 양식된 만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욕’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구하는 마음이다. 그 대상이 재물일 때는 ‘물욕’이라 하고, 음식일 때는 ‘식탐’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대상에 따라 탐욕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금식 후 보호식을 해야 하는데 식탐을 물리치지 못해 보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작은 시험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때 능력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큰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4-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다.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수익이 클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해 불법을 행할 수 있다. 당시는 흥통하고 축복의 기쁨인 것 같지만 결국 불통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계명들을 지키며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속성 중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을 들추어내는 시험이다. 특이한 점은 원수 마귀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한다는 사실이다.

교만의 시험은 성도들의 신앙이 안정됐을 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진리를 분별하고,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틈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진리를 알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스스로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신앙의 경륜이 짧는데 열심을 낸다 해서 직분이 주어질 경우 교만의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딤후 3:6).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 영의 지식은 쌓이지만 마음을 진리로 일구지 않은 경우이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 놓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고전 8:1).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섬김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즐거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직분이 올라가는 사람은 지시하고 명령하며 섬김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된다. 따라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해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기 바란다.

원래 천하만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수 마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원수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할 수 있지만 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므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 등이 좋아 보이니 그것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한다. 이는 원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신앙 체함이 있는데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일을 어기는 경우,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충성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또 세상 명예를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오락을 취하는데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쳐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Merry Christmas

# 12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 12.7~12.1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23-24
- 영의 사람
- 믿음의 분량 26-27
- 천국 1-5
- 일곱교회 21-25
- 지옥 14-17
- 우리가 바라볼 것
- 사랑장 1-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
- 축복 7
- 요한계시록 강해 45
- 십계명 1-3

**GCN TV설교**

- 육적인 사랑 1,2 (이수진 목사)
- 정직한 자 1 (이미영 목사)
- 눈물의 열매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4 / 기도 1 (이희선 목사)
- 생명의 수 16 / 옮기 강해 1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3 / 악한 죄 (정규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창조와 과학 1
- 내 마음의 찬양 2
- 옛날 옛적에 6
- 흥겨운 소리 9
- 모두 드려요 19
- 만민 지킴이 5
- 즐거운 요리 21
- 뷰티풀 라이프 1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릉 17
- English 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
- 플로리스트 9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1
- 러시아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조장, 구역장 교육 5-6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시공 초월한 기도로 태중에 있는 딸의 이상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조슈아 황 성도 (38세, 뉴질랜드)

사랑하는 이재록 목사님,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16주로 정기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태아에 대해 세 가지 비정상적인 소견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얼기낭종(뇌 물혹)이며, 두 번째는 심장 이상 소견(심장 칼슘 침착 현상)으로 다운증후군과 관련, 세 번째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막이 아직 합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350:1)에 속해 있었지요.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이 떠올랐습니다. 황핑핑 선교사(싱가포르만민교회)의 인도로 저희 부부는 2008년에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핑핑 선교사를 통해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10월 12일 교회 창립 기념에 배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10월 22일 병원 정기검사 결과, 방사선 전문의 소견으로는 지난번 세 가지 이상 증상이 전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주 당시 태아의 크기가 매우 작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크기로 매우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로 태중에 있는 저희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시공 초월한 권능을 체험한 조슈아 황 성도 부부



◀ 지난 11월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했다. (아빠 최병술 장로, 언니 최찬미 자매, 최나영 자매, 엄마 현계숙 권사)

### “희귀 질환을 치료받아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최나영 자매 (16세, 중3선교회)

2013년 12월, 갑자기 많이 뿌옇게 보여 눈을 비비고 다시 눈을 떴지만 구불구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오른쪽 눈은 정상인데 왼쪽 눈으로 보면 일그러져 보였지요. 이 현상은 한 달간 계속 됐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며, 페이스북(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탈퇴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니 그 안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실 칠판이 왼쪽 눈에 휘어져 보였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와 함께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소견서를 써 주는 것이었지요.

4월 초 전문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뜻밖에도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이었습니다. 난시인데다가 근시가 매우 심해서 맥락막에 새로운 혈관이 생긴 것입니다. 맥락막(choroid, 脈絡膜)이란 안구의 뒤쪽 5/6를 차지하고 있는 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분산되지 않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며, 어린 학생의 경우 1,000명에 1명꼴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눈동자에 직접 주사를 놓는 것으로, 주사 한 대에 1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제 경우는 난시가 있고 근시가 매우 심해 실명에 가까울 수 있다며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권능의 기도로 보호받으며 약이나 병원과 상관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생아 때 심한 호흡곤란으로 잘못하면 뇌 손상으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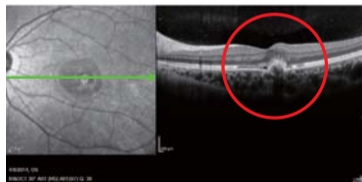
었지만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왼쪽 발등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누군가 제 발등을 포근히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담당 교구장님은 제 상태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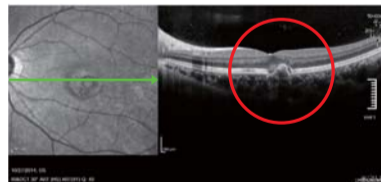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이 많던 제게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 등 많은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산상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기도를 받았더니 제 왼쪽 눈이 호전됐습니다.

8월 초에 열린 ‘2014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는 온전히 치료받고자 2주간 작정기도를 드렸지요.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간에 단에서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는데 왼쪽 눈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주간 금요철야예배 때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모니터를 보는데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 기도받기 전: 병변 부위 경계 불분명, 활동적



▲ 기도받은 후: 병변 부위 경계 분명, 비활동적

니다. 할렐루야! 병원 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은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몇 차례 받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자 “자연 치료는 불가능한데...” 하시며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가우똥하셨지요. 이처럼 권능의 역사로 희귀 질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방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팽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대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